

‘한 눈에 반한 쌀’ 최고 이유 있었네

해남 옥전농협 ‘한 눈에 반한 쌀’이 최근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해 다시 한번 명성을 날렸다. ‘한 눈에 반한 쌀’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는 기록도 세웠다.

옥전농협은 ‘한 눈에 반한 쌀’이 전국 최고의 미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씨(봉황벼) 재종과 생산지도, 유통을 일괄 처리하고 있다. 매년 좋은 벼

‘쌀눈’ 살린 가공기술 밥맛·영양 일석이조

씨만을 골라 1천ha의 재배 계약농민에게 공급하고, 밥맛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기술을 철저하게 지도한다.

또 가공과정에서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는 쌀눈이 최대한(80%) 살아있도록 가공한다. 최상의 밥맛을 유지하기 위해 밥주 당일 가공하고 가공일이 15일 경과된 제품은 100% 리콜한다. ‘한 눈에 반한 쌀’은 대형유통업체와의 판매 계약을 통해 20kg 한 포대에 6만9천원을 받는다. 올 설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각계에 보낸 설 선물로도 선택됐다.

/박치경기자 unipark@

재보선 마저도 또 돈봉투

민선군수 셋 도중하차 화순군서 적발...해남서도 고발

10·25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돈 선거의 망령이 재연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돈 선거로 인해 단체장이 취임식도 제대로 못한 채 물러나거나 구속·사임함에 따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또 다시 돈 선거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는 데 대해 경악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법정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12일 해남·진도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한 후보 친척의 현금 제공 혐의가 적발된 데 이어, 15일에는 화순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의 돌린 한 후보의 지지자가 긴급 체포되는 등 극도의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화순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600만원을 건네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6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4일 밤 9시경 A후보 지지자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 가운데 3명을 자신의 집으로 차례로 불러 200만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 가운데 1명은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풀려났으며 나머지 2명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A후보가 군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집을 팔고 남은 돈 가운데 일부를 자발적으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 명단에 있는 28명 가운데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 지, A후보가 금품살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한 후보의 친척인 B(여·42)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차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출마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석한 6명의 기자에게 20만원씩의 사례금을 준 혐의다.

최병근 화순YMCA이사장은 “화순은 민선자치 이후 10여년동안 세 명

의 군수가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돼 잇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이같은 일이 또 다시 터져 참담하다”며 “하지만 유권자들은 마지막까지 누가 군수에 적합한 인물인지 잘 가려 이성과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담비 대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형준 전 화순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북구 ‘국화축제’

16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막을 올린 ‘제16회 인형극과 함께하는 국화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구청 광장에 수놓아진 꽃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대학 비인기학과 신입생 모집중단 사태

유사학과 통폐합도 잇따라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들의 비인기학과나 단과대학의 모집 중단, 학과 통폐합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영암 대불대는 16일 2007학년도부터 공과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대불공과대학으로 출발해 1997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대불대의 공대는 학교 개설의 모태가 됐던 단과대였다.

대불대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정원 50명 모집에 10여명이 지원하는 등 신입생이 갈수록 줄어 학과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워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대를 없애는 대신 보건, 사범, 예·체능, 경찰, 소방계열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불대는 토목환경공학과, 기술교육과, 자동화기계공학과 등 4개 학년 8개 과에 재학 중인 587명이 모두 졸업하면 공대를 폐지할 방침이다.

나주 동산대도 2007학년도 입시부터 사회과학대학 언론광고학과와 문화관광대학 사진영상학과·연기영상학과 등 3개 학과를 문화관광대학 방송연예학과로 통합시켜 신입생을 뽑고 있다.

동산대 관계자는 “3개 학과를 지원하는 신입생이 계속 줄어든다. 유사학과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학과 통·폐합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호남대도 인문사회대학 역사문화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 지난 2004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데 이어 현재 3, 4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 20여명이 졸업하면 폐과시킬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비인기학과를 없애는 대신 특성화로 경쟁력을 갖춘 학과를 집중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히 일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中, 대북송금 중단

北 노동자 철수...국경 철조망 설치도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15일 통과됨에 따라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 선양(瀋陽)과 단둥(丹東) 등지의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4·5·6면〉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은행에서 대북송금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거나 북한의 노동자들이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앞서 이미 강도높은 대북제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단둥지역의 은행들은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 13일 오 전부터 대북 송금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둥시는 압록강 접경지역에 철조망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중국이 대북제재 이후 대량 탈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 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단둥지역의 변방수비대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동강(東港)시까지 연결되는 강변도로에는 북한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군데군데 철조망을 설치한 데 이어 국경 접경지역에도 중국 측이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스

조대부고 총동창회
선선체육대회 및 부고인의 밤

◆제8회 조대부고인의 밤◆
일시: 2006. 10. 21(토) 18:00
장소: 제일오아시스 스키리조트 19층 무궁화홀(구 현대극장영) ☎ 062-234-5666

◆제7차 총동창회 선선체육대회◆
일시: 2006. 10. 22(일) 09:30
장소: 모교 운동장 ☎ 062-224-1461 / 062-232-6897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신우식

社 告

제20회 광주·전남여성경제인 포럼
공병호 소장 '기업 CEO의 미래 준비'

19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구소장이 '기업 CEO의 미래 준비'를 주제로 강연하게 됩니다. 포럼은 남녀 시민 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공병호 경영연

여러분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일시 : 10월 19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 주제 : 기업 CEO의 미래 준비
- 강사 :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20

光州日報社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경 대광여고 졸업생의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축하합니다

박상희(세습대) 신명민(이와야대) 고수현(해와대) 문현정(세습대)

대광여고에는 꿈과 희망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名家 - 대광여자고등학교

- 1987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88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89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90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91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92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93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94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95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96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97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98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1999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2000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2001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2002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2003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2004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2005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 2006년 사법시험 1000명 합격(100%)

대광여자고등학교